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7월 5일**

파 수 꾼 사62:1-7

오늘은 우리가 맥추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은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에는 언약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째는 이 날 성령이 임한 것은 구약 시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날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분들이 그냥 막연히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감람산에서 받은 주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약속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요16:13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과 그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셨고 다른 것은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 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언약으로 잡아야 할 것은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어도 언약은 성취된 기록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며 말씀 성취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 경우도 능히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불신앙 해도 언약은 성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불신앙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순절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진 구약의 약속을 기반으로 일어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 약속이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고 그 날을 시작한다는 선언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기도하던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언약을 잡으라는 뜻일 것입니다

1. 파수꾼

1)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즉 2절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2)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나의 기쁨이라 네 땅을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3) 너무나 귀중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고 그러시면서 더 근본적인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4) 지속적으로 기도하여 그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게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가정을 지키고 너의

사는 곳 예루살렘을 지키며 너의 나라를 지켜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5) 1절에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내게 기도하라. 언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말씀은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6)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나도 파수꾼이 되고 이 시대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질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7)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은 언약을 잡고 기도했고 약속하신 그 날이 이르매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즉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8)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것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곧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였습니다.

9)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못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준비된 응답을 받고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서 우리도 성경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0) 이것이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과 같은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므로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일어난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인생 작품이 되고 후대를 위하여 남길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11) 이것이 우리가 크든 작든 7포인트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여 흐지부지 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여 중단하겠습니까. 누가 핍박을 한다고 하여 여기를 떠나겠습니까. 변질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12) 우리가 이 일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해 왔지만 이제 다시 시작을 해 보려합니다. 성경적 전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처럼 교회 안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13) 이 새로운 출발에 다 동참하여 성경과 같은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성경적 전도운동도 일어나길 바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미국과 남미의 역사를 다시 쓰는 안디옥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준비하신 응답을 누리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다 되는 것입니다.